

# 分斷狀況과 文學

—崔仁勳의 「廣場」—

金 永 和\*

## 1

1945년 8월 이래 오늘날까지 우리 민족은 분단상황 속에 있다. 이런 상황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황 인식에 대한 편차를 드러낸다. 분단으로 말미암아 삶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린 사람으로부터 분단상황에 대한 성찰이 나 깊은 인식없이 하루하루의 삶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6·25를 직접 체험한 세대와 그것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인식하는 세대 사이에는 커다란 인식차가 있는 듯 보인다.

작가에게 있어서도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분단상황을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 작품 가운데 화제가 되었던 작품이 최 인훈의 「廣場」(1960.10, 새벽)이다.

연보에 따르면<sup>1)</sup> 최 인훈은 1936년 4월 13일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다. 재래식 나이로 그는 10살 때 광복과 분단을 목격했고, 15살 때 원산에서 6·25를 만났으며, 그해 12월 월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연보가 맞는다면 그는 10살부터 15살까지 5년간 북한에 살면서 공산화되는 북한을 목격한 것이 된다. 이

\* 제주대학교 교수

1) 우리 시대의 作家 研究 叢書 (崔仁勳)(1979.은애) p.337.

점이 1936년 전후에 태어나 대한민국에서만 살았던 작가들과 체험 내용이 다르다.

「광장」을 읽으면 6·25 전후의 북한의 여러 사정이 드러난다. 이것은 최 인훈이 북한에 있을 때 보았던 사정과 는 거리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감수성이 예민한 소년시절에 북한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산화 과정에 있었던 북한 사회를 목격한 체험이 그런 상황을 제시할 수 있었던 힘일 것이다.

「광장」은 분단 상황을 그린 다른 소설에서는 보기 어려운 북한 체제와 사회의 단면이 제시되어 북한 사회를 체험해 보지 못한 한국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에 대한 인식과 충격을 준다. 그 점에서 그의 북한 체험은 이 소설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5살 이전의 체험은 미숙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광장」을 발표할 때의 그의 나이가 26살이었다는 기록<sup>2)</sup>으로 미루어 보면 그는 실제로 호적의 기록보다 한 두 살 더 위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의 북한 체험은 15살 이상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록이 맞다면 그의 북한 체험은 미숙한 것이라고 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 소설은 4·19가 일어난 후에 쓰여졌다. 그때 그는 장교로 대전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부대 근처의 하숙방에서 3개월에 걸쳐 썼다.<sup>3)</sup> 이 작품은 그 해 10월 『새벽』에 발표되어 독자에게 선을 보였는데, 그 때의 「광장」은 600여매의 중편이었다. 그러나 그후 여러 차례 개작을 거듭했다.

필자가 「광장」을 처음 읽은 것은 1960년 10월 『새벽』에 발표된 중편이었다. 그 때 읽은 신선감과 충격은 오래 지속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세밀하게 읽은 것은 新丘文化社版에 실린 작품이다. 대체로 원형에 값하는 신구문화사판의 작품을 읽으면서 처음의 신선감과 충격도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분단상황을 다룬 작품으로 깊게 인상에 남았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文學과 知性社版에 실린 작품을 읽으면서 그의 개작의 뜻을 헤아려 보았다. 그러나 원형에 값하는 신구문화사판을 1차 자료로, 문학과 지성사판을 2차 자료로 이 글을 쓴다.

2) 朴來富, 文學紀行(崔仁勳: 廣場)(1986. 6. 1. 한국일보)

3) 朴來富, 윗 글.

## 2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45년 8월 광복에서부터 1953년 7월 휴전 이후까지 대략 8년간이다. 그러나 사건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 기간은 주인공인 <이명준>이 대학 3년 때인 48년 전후부터 휴전이 될 때까지 대략 5년 내외가 된다.

공간적 배경은 서울과 평양이다. 이것은 단순히 한 지역의 이름만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그런 체제가 갖고 있는 두 사회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만큼 복합적 의미를 지닌다.

결국 이 소설은 시간적으로는 광복에서부터 휴전까지, 공간적으로는 서울과 평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우리 민족사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을 안겨준 격동의 시대로 기록될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삶은 오래 기억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배경을 설정하고 최 인훈은 어떤 이물을 창조하여 제시하고 있을까.

그는 철학과 3년생이었다. 그의 생각으로는 철학과 3학년쯤 되면 세계와 삶에 대한 그 어떤 그럴싸한 <결론>이 얻어질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곧 이어겨울 방학이 될 3학년 가을, 그는 아무런 <결론>도 가진 것이 없었다. 결론? 결론이라는 건 도대체 무얼 뜻하는 것일까. 세계와 인생에 대한 결론이란 건 무엇 뜻하는 것일까. 그것만 파악하면 생활 같은 건 아주 시시해지는 그런 무엇일까. 아니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또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살며, 어떻게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그가 일상 눈으로 보고, 느끼고 생활하는 모든 종류의 일상사에 관한 한, 그는 아무런 의미도 거기서 느낄 수 없었다. [중략] 그는 옷목에 놓인 책상에 마주 섰다. 한번 죽 훑어 보았다. 얼른 뽑아 보고 싶은 책이 없었다. 4백권 남짓한 장서(藏書), 선집이나 총서로 된 사전류가 아니고 보면 한 책씩 구해선 마지막 장까지 읽고는 꽂아놓고 하여 채워진 책장은 한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었다. 월간 잡지가 한권도 끼지 않았다는 게 그의 자랑이었다. 그때그때 흥미를 느낀 방면의 책을 사서 보면, 자연 그 다음에 골라야 할 책이 정해지게 마련이었다. 벽 한쪽을 절반쯤 차지하고 있는 이 책장을 보고 있으면, 그 책들을 구입하던 앞뒤 일이

며, 그렇게 훑어간 그의 마음의 순례(巡禮)길이 임자인 그에게는 선히 떠오는 것이고 한 권 한 권은 그대로 이정표(里程標)였다. [신구문화사관, pp. 21-28]

대학 3학년인 철학도, 독서광, 먹고 살아가는 기본적인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삶,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이상주의자, 따라서 따분한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권태를 느끼는 젊은이다.

먹고 살아가는데 지쳐 현실과 사회를 조용히 헤아려 보거나 음미할 시간을 갖기 어려운 보통 사람과는 달리 <이명준>은 역사, 사회, 현실, 삶의 의미 등을 음미할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는 그는 미숙한 구석이 있지만, 1950년 전후의 기준으로 보면 지식인에 속할 것이다.

최 인훈은 이런 인물을 분단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등장시켜 놓고, 분단상황과 역사와 현실의 양상을 점검하고 있다.

### 3

<이명준>은 사색인답게 끊임없이 생각을 되풀이 한다. 그러면서 그가 몸담고 있는 현실과 사회로 눈을 돌린다. 감격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몸을 던져 일할 만한 광장이 없을까 하고 찾아 본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있을 때 그의 눈에 비친 현실과 사회는 그의 이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한국 정치의 광장에는 똥오줌에 쓰레기만 더미로 쌓였어요. 공공의 것이어야 할 화초를 꺾어다 저희 집 꽃병에 꽂구, 분수 꼭지를 뽑아다 저희 집 변소에 시설하구, 케이크먼트를 파날라다가 저희 집 부엌 바닥을 깔구. 한국의 정치가들이 광장에 나올 땐 자루와 도끼와 삽을 들고, 눈에는 마스크를 가리고 도둑질 하러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다 선량한 동행인이 걸고 말릴라치면 멀리서 망을 보던 깡이 광장에서 빠지는 골목에서 불쑥 튀어나오면서 한칼에 그를 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약탈자한테서 뭇을 타는 것이지요. 그는 그 뭇으로 정조를 사고 돈이 끊어지면 또 다시 비수를 품고 광장으로 나옵니다.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깐요. 그렇게 해서 빼앗기고 피흘린 황량한 광장에 검은 태양이 떴다 가는 피빛으로 물들어 빌딩 너머로 멀어져 갑니다. 추악한 밤의 광장·탐욕과 배신과 살인의 광장. 이게 한국의 정치의 광장이 아닙니까? [pp. 36-37]

경제의 광장에는 장물(藏物)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도둑질 물건 안 놓겠다고 양탈하는 말라빠진 손목을 도끼로 쳐 메어 버리고, 빼앗아 온 한자루의 감자가 거기 있습니다. 피문은 배추가 거기 있습니다. 정액(精液)으로 더럽혀지고 찢긴, 강간당한 여인의 몸뚱이에서 벗겨온 드레스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한푼 두푼 모아서 가게가 늘어가는 그런 얘기는 벌써 통하지 않아요. 최소한 양심을 지키면서 탐욕과의 조절을 꾀하자는 자본주의(資本主義)의 교활한 윤리조차도 없습니다. 과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협박합니다. 한국 경제의 광장에는 사기의 안개 속에 협박의 꽃불이 터지고 허영의 애두발루운이 따릅니다. [p. 37]

문화의 광장 말입니다. 무정견(無定見)의 꽃이 만발합니다. 또 그곳에서는 아편꽃 재배가 한창입니다. 개처럼 욕정(慾情)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주는 개인 지도와 좀 대중적인 강습소와 이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중략] 시인들은 알아볼 수 있는 극한까지 언어를 확대해서 사디즘 충동을 카타르시스합니다. 그들은 가난하니까 진짜 대상-여인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평가들은 '아니 자네가 정말 카프카와 똑 같은 체험을 소유했던 말야? 거짓말 말아, 저놈은 표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산 카프카를 엉망진창이 되게시리 구타합니다. 비평가란 자기만은 박래품(舶來品)이라는 망상에 걸린 불쌍한 정신병자의 별명이지요. 이런 광장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가진 감정이란 불신(不信)뿐입니다. [p. 37]

<이명준>의 발언을 음미하면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어느 분야도 감격을 가지고 일할 무대가 못된다는 것이다. 탐욕과 배신과 살인이 횡행하는 정치의 광장, 사기와 협박이 난무하는 경제의 광장, 무정견과 사디즘과 박래품이 판을 치는 문화의 광장, 어느 것도 <이명준>이 활동할 무대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권태의 늪에 빠진다.

이런 그에게 이복에 있는 아버지 때문에 경찰에 불리어 가고, 형사에게 얻어맞아 피를 흘리고 나서 권태의 늪에서 벗어날 수는 있었지만 한국 사회에 대한 환멸이 가중된다. 일제 때 한국인을 체포하여 고문했던 사람이 한국의 형사가 되어 다시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는 사실도 분노와 환멸의 요인이지만, 일제 때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죄의식이 없이 오히려 일제 때 한국인을 고문했던 사실을 자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한국 사회에 대한 환멸이 가중된

다. 한국 사회에 대한 환멸, 형사의 부당한 고문, ‘윤애’와의 밀착도의 결여는 그로 하여금 이북행을 결심한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와 부친이 저기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이북행을 결심하게 한다.

이북에 올라가 노동신문 본사 편집부 근무를 명령 받았을 때 <이명준>은 거기서 감격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가졌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신문사의 도서실에 남아서 늦게까지 연구했다. 우선 볼세비키 당사를 일주일만에 독파했다. 공산당원들이 당사라는 말을 할 때 일종의 경건한 가락을 담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북한에서 볼세비키 당사가 역사 이전의 성경의 말씀처럼 굳어져 기계적으로 인용되고, 기계적으로 외쳐대는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모든 일을 당사에 비추어 해석하는 굳어진 모습을 발견한다.

이게 무슨 인민의 공화국입니까? 이게 무슨 인민의 소비에트입니까? 제가 남한을 탈출한 건 이런 사회로 오려던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못 견디게 그리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지한 형사의 고문이 두려워서도 아닙니다. 제 나이에 아버지가 없어서 못 살 건 아니잖아요? 또 제가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가 여기서 활약하신다고 그들이 저를 죽이기가 했겠습니까? 저는 살고 싶었던 겁니다. 보람있게 청춘을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정말 삶다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중략] 편집장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명준> 동무는 혼자서 공화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는 군. 당이 명령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곧 공화국을 위한 거요. 개인주의적인 정신을 버리시오.’ 라구요. 아하, 당은 저 더러는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사 건전에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주인공이 아니고 ‘당’이 주인공이라는 걸. ‘당’만이 흥분하고 도취합니다. 우리는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당’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한숨지을 때니 너희들은 복창만 하라는 겁니다. [중략] 저는 월북한 이래 일반 소시민이나 노동자, 농민 들까지도 어떤 생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관심할 뿐입니다. 그들은 굶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다닙니다. 그들은 앵무새처럼 구호를 외칠 뿐입니다. 인민, 오호, 비겁한 인민, 타락한 인민. 아니 그들은 원래부터 그랬으니깐 타락했달 수도 없습니다. 그저 어리석고 몽매한 인민, 일찌고 불꽃 위에서 살을 태운 종교적 정열도 없었고, 관군이 출동하면 저희 지도자를 묶어서 내준 배반의 악덕에 충만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인민이란 배반자들입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공산당원들은 치사하고 비굴하고 게으른 개들입니다. [p. 80]

이 인용문은 공산당원이요, 북한의 지도층에 있는 그의 부친에 대한 항변이지만 <이명준>이 북한 사회에 대한 환멸과 분노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북행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와 절망을 토로한 것이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북한에 대해서 절망한다.

어느 집회이나 판에 박은 토론과 절차가 있을 뿐이었다. 정열이 아니고 정열의 모방이었다. 신념이 아니고 신념의 풍문뿐이었다. 월북한 지 반년이 지난 이듬해 명준은 호랑이 아가리에 스스로 걸어 들어온 자신을 저주하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나?’ 강철 분말이 섞인 것보다 더 숨막히는 공기 속에서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하숙집 천정을 노려 보고 있었다. [p.78]

이상주의자인 <이명준>은 겨우 여섯 달만에 북한 사회에 절망한다.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왔다는 후회와 함께 그는 다시 회의와 권태에 빠진다. 그는 남·북 어느 곳에서도 감격을 가지고 일할 광장이 없음을 절감한다.

이런 <이명준>의 방황과 좌절, 회의와 환멸을 지켜보면서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독자들은 그의 고뇌와 방황이 단순한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특히 역사와 현실을 조용히 음미하는 지식인들에게 더욱 그럴 것이다. 이 점이 이 소설이 화제가 될 수 있었던 요인일 것이다.

#### 4

남과 북이 받아들인 체제와 이데올로기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이명준>의 눈에 비친 것은 부정적이다.

서양에 가서 민주주의를 배워왔다는 놈들이 돌아와서는 자기 몇 대조가 무슨 관서, 무슨 참관을 지냈다는 자랑을 늘어 놓으면서 인민의 등에 올라 앉아 외국에서 맞춘 알른저리는 구둣발로 그들의 배를 걸어차고 있었읍니다. 도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일본놈들 밑에서 관직을 지내고 아버지 같은 애국자를 잡아 죽이던 놈들이 무슨 국장, 무슨 처장, 무슨 청장 자리에 앉아 인민들을 호령하고 있었읍니다. 남조선 사회는 백귀 야행하는 도시 알 수 없는 난장판이었읍니다. 청년들은 섹스와 재즈와 미국 여배우 것가슴에서 허덕이지 않으면 재빨리 외국인을 친지로 삼아서 외국으로 내배고 있었읍니다. 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그 험

한 사회의 혼탁에서 잠시 몸을 빼고 아름다운 아내와 곤궁하지 않을 만큼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간판과 기술을 얻기 위해서 외국으로 간 것입니다. [p. 79]

명준이 북한에서 발견한 것은 잿빛공화국이었다. 이 만주의 저녁 노을처럼 피빛으로 타면서 혁명의 흥분 속에 살고 있는 공화국이 아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콀유니스트들이 흥분이나 감격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이 사회의 생리를 똑똑히 느낀 것은 월북 직후 북조선 주요 도시를 당의 명령으로 강연 행각했을 때였다. 학교, 공장, 시민회관, 그 자리를 채운 얼굴들은 한마디로 무기력이었다. 그저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아무 감동도 없었다. 혁명의 공화국에 사는 열기 먼 시민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는 과격한 언사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이 점점 쪽스러워지는 것을 느꼈다. 강연 원고만 해도 그랬다. 몇 번이나 당 선전부의 수정지시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결재가 났을 때 그 원고는 콀유니스트들이 상투어로 된 죽은 문장이었다. 명준이 말하고 싶어한 줄거리는 고스란히 중화되어 버리고 구태어 명준 스스로의 입에서 발음되어야 할 아무 필연성도 없는 언어로 일그러져 있었다. [pp. 75-87]

남한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받아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구호와 겉모습에서 지나지 않고 그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명준>의 생각이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봉건시대의 지배자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 민족 정기를 뒷전으로 돌리고 친일파를 재등용하여 국민의 정신을 흐리게 한 정치, 섹스와 출세와 이기적인 것이 판치는 사회, 양심을 지키면서 탐욕과의 조절을 꾀하는 자본주의 윤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곳이라는 진단이다.

북한의 경우는 ‘잿빛 공화국’이라는 말 속에 요약된다. 혁명의 열기와 흥분이 없는 곳, 인민 뿐 아니라 콀유니스트들조차 그것을 원하지 않는 공산체제, 개인의 의견과 생각을 당의 그것으로 바뀌어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그것은 개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는 사회다.

<이명준>의 발언을 음미하면 적어도 북한에는 사람들에게 흥분과 열기와 활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스티유를 부수고 샹쓰를 찢어서 공화국 만세를 부르던 불란서 인민들과 같은 기쁨과 웃음이 마땅히 북한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굳어진 북한 사회는 그것이 없었다.

<이명준>은 韓民族의 한 사람으로서, 사색인으로서, 이상주의자로서, 감격



을 가지고 살기를 열망하는 젊은이로서, 남한도 북한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 점은 우리가 역사와 현실을 음미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루하루 일상사에 묻혀 살아가다가 문득 역사와 현실을 재음미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될 때,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의미심장한 것일 수도 있다.

남과 북이 받아들인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역사의 진행과정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내부의 필연성에서 창조된 것도 아니다. 풍문으로만 그것을 접하다가, 또는 일부 지식인들의 관념 속에만 있다가 광복과 더불어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면이 많다. 대다수 백성들은 이데올로기의 실상을 알지 못한 채 南에 있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北에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진단일 것이다. 지도층은 이데올로기의 구호와 허상을 이용하여 그것을 백성을 지배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단상황은 박래품인 이데올로기에 의해 백성들의 삶을 허물어뜨리는 작용까지 하고 있다는 숨은 뜻이 이 소설에 있는지 모른다. 그만큼 분단상황이 가져온 여러 현상들을 성찰할 기회를 우리는 <이명준>의 생각을 통해 갖게 된다.

## 5

<이명준>은 정열을 불태울 광장을 찾고 있는 한편에서는 개인의 포화된 순수 감정이나 아찔한 도취감을 은연중 구하고 있었다.

그에게 늘 중후한 부피를 가지고 회상되는 기억이 있다. 그는 그것을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학에 갓 들어간 해 여름 교의를 몇몇이 어울려 소풍을 나간 적이 있었다. 한 여름 뜨거운 날씨. 구름 한점 보이지 않고 바람기도 없었다. 뽕뽕이 흩어져서 여기 저기 나무그늘로 찾아들다가 어느 낮은 비탈에 올라섰을 때였다. 그는 아찔한 도취감이 불시에 온 몸을 휩싸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다. [중략] 여자의 생각이 문득 났다. 그는 자기가 아직도 애인을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여인과의 사랑이란 몹시

도 번잡한 것으로 느껴지고, 다만 어떤 여인이 자기에게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준 다음 그 자리에서 죽어 버리고, 자기는 아무 의무감도 없는 포화된 순수 감정만을 소유하고 싶었다. [pp. 22-23]

윤애의 덩덤한 낯빛은, 철학과 학생 명준에게 화려한 윈피스로 단장하고 지척의 거리에 다소곳이 있는 물자체였다. / 부드러운 살결을 벽처럼 둘러싼 이 물건을 정복해 보자는 충동이 불쑥 일어났다. [중략] 명준은 그녀를 정복해 보자는 생각이 드는 찰라, 언젠가 여름날 별관에서 느낀 엑스터시가 전류처럼 흘러오는 걸 느꼈다. [p.53]

<이명준>은 ‘廣場’을 찾아 해매는 한편에서는 ‘密室’을 찾고 있었다. 광장에 서는 논리가 필요했지만 밀실에서는 논리 이전의 감정과 본능만 있었다. 그는 남자였고, 젊었다. 그래서 밀실로 돌아왔을 때 여인과 순수 감정을 무의식중에 찾고 있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일찌기 경험한 것도 아니다. 생명 있는 것들이 원초적으로 지니는 본능의 충동 속에 그도 있고 싶었다.

남한 사회에 환멸을 느끼고 형사에게 시달리자, 그는 <윤애>를 찾아가ندا. 학교에서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어린이가 엄마에게 달려가듯, 사회에서 시달린 중년 남성이 집에 있는 아내에게 달려가듯, 그는 <윤애>에게 달려 갔다. 그는 무의식중에 위안을, 사랑을, 안온하고 푸근한 감정과 분위기를 저 가슴 속 깊은 데서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간적 속성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이 소설이 살벌하고 거친 광장의 이야기만 지속됐더라면 독자들에게 메마른 느낌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메마름을 적셔주는 것이 여인을 찾는 <명준>의 감정이다.

<이명준>이 <윤애>와 더 깊이 밀착되었더라면 남한 사회에 대한 환멸이나, 형사로부터의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한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애>와의 관계가 그를 남한에 붙들어 댄 만큼 밀착도가 없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비게 되고 이북을 선택한다.

이북에서 사회와 현실에 절망했을 때 <은혜>를 만나고 <은혜>와 가까워지면 서 광장에서의 패배를 밀실에서 달래었다. 전쟁이 일어나 더 이상 밀실에 안주할 수 없었으나 도리어 전선에서 그들을 밀실을 발견한다. 때문에 포탄이 떨어지는 전쟁터에서도 그는 포만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은혜>까지 잃었을 때 <이명준>은 광장과 밀실을 동시에 잃었다. 그가 중립국을 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한반도에서 광장과 밀실을 함께 잃었기 때문이다.

정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명준은 깊은 절망에 빠졌다. 그는 북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었다. 아버지가 전쟁 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소식을 알 수 없었으나 설령 생존했다 하더라도 그 한 가지 조건으로 북을 택하기엔 너무 약했다. [중략] 은혜도 없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회 속에 있다는 감정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사회 속의 어떤 인간과 맺어져 있다는 말이라면, 맺어질 아무도 없는 사회의 어느 곳에 좌표를 정할 것인가. 그렇다고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신앙조차 잃어버린 지금에. [p.112]

남한을 택할 것인가? 명준의 눈에는 남한이란 게으른 <즉자태>(即自態)였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여태>(缺如態)였다. 키에르케고르 신생식으로 말하면 <실존하지 않는 사람들>의 광장이 아닌 광장이었다. 광성이 무섭다면 무이상은 슬펐다. 다만 장점이 있다면 그곳에는 타락할 수 있는 자유와 나태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 [중략] 이런 사회, 그런 사회로 가기도 싫다. 그러나 둘 중에 택일해야만 한다. 형기 만료된 죄수가 더 있겠다고 버티었자 안 될 말이다. 그는 흡사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이었다. 그때 중립국 송환이 쌍방간에 합의를 보았다. 막다른 골목에서 마지막 각오를 하는 찰나 난데없이 바늘이 내려온 것이다.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기억한다. [p.114]

남과 북을 동시에 거부한 <이명준>은 중립국을 택한다. 중립국에 가서 가능한 병원의 문지기, 소방서 감시원, 또는 극장의 매표원 등 될 수 있는 대로 정신을 쓰지 않는 그런 일에 종사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그는 정신을 쓰는 일에 종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도 철학을 전공하고 독서 속에 시간을 보냈으며, 북한에서는 노동신문 기자로 일하면서 이상과 현실, 관념과 정책 속에 묻혀 지내면서 정신을 쓸 대로 썼다. 그 결과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것이다. 일종의 도피요, 의식적인 망각이요, 지난날의 삶에 대한 회이다. 그러나 그는 중립국행도 중도에서 포기하고 삶 자체를 버린다. 이것은 <이명준> 스스로의 선택이지만 상황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택하도록 몰고 간다. 그러므로 그를 죽인 것은 역사요, 상황이다. 추상적인 역사와 상황이라는 살인자에 의해서 약하다 약한 한 인간은 죽었다고

볼 수 있다.

생각하면 역사라는 것과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파괴와 살인을 저질러 왔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읽으면서 터득해 왔다.

〈이명준〉으로 대표되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도 죽었고,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는지 모른다. 지금도 역사와 상황은 음험하게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들도 그런 음모의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이 소설을 읽으면서 알게 된다는 것은 또 하나의 비극일 것이다.

## 6

필자는 광복 직후의 북한 사회는 잘 모른다. 그러나 광복후 지금까지 남한의 사회와 현실은 목격하면서 성장했다. 따라서 40대 후반의 한국인이란 누구나 갖게 되는 사회와 현실을 보는 눈을 필자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런 눈으로 이 소설을 읽으면 〈이명준〉을 통해 40년대말의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적 상황을 드러낸 부분은 당대 현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느낌이 있다. 그 부분을 음미하면 차라리 최 인훈이 이 소설을 쓰기 직전인 50년대말의 사회와 현실을 드러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40년대말의 한국 사회와 현실의 분석을 그보다 10년 쯤쯤 뒤어 50년대말의 그것으로 바뀌어 놓고 분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워 버릴 수 없다.

이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광장」은 분단상황이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과정을 밀도있게 추구한 작품이다. 분단상황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고통을 받는 사정을 그린 소설은 상당수 있지만 주인공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소설은 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물론 역사적 사회적 상황이 그로 하여금 죽음을 선택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선택은 주인공 스스로에게 있었다. 그 점에서 이 소설은 주목을 끈다.

〈이명준〉은 미숙한 점이 있지만 한국 지식인에 속한다. 그는 사색인이요, 이상주의자다. 그는 분단시대의, 좀더 구체적으로는 6·25전후의 한반도의 상황—그것이 남이건, 북이건—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우선 남과 북이 선택한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우리 민족 내부의 필연적 요구로, 우리 민족에 의

해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 외래적인 것이라는 데 문제점을 찾고 그나마 그런 이데올로기와 체제가 원래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이식된 것이 아니라 굴절된 상태로 받아들이고 있음에 주목한 것 같다. 이것은 우리 역사의 파행성이 자초한 것일 수도 있다는데 아픔이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는 것은 <이명준> 개인의 물음만이 아니라 한국 지식인의 물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광장」은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한국 지식인의 고뇌를 지적인 접근으로 살핀 소설이라는 데 우리 소설사에 중요한 작품으로 남을 것이다.